

광주 총장로 1가 '젊음의 쌈지길' 변신 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길〉

입구~광주천변 200여m 100여개 점포 들어서 '불야성' 민간이 주도하는 '자생적 도심재생의 모델' 성장 가능성

광주시 동구 총장로 1가 입구에서 광주천 변 웨딩거리까지 200여m. 이 거리는 매일 밤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장미 불황에도 끄떡없이 불야성을 이루면서 퇴락해 가는 구도심 상권의 부활에 불을 붙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즐비하고 젊은이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다양한 음식점이 생기면서 신흥 가두상권으로 급부상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 곳 거리에만 커피전문점이 20여곳, 주점과 음식점 갯수까지 합하면 100여곳이 넘게 영업하고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20~40대가 혼재

된 상권으로 의류매장과 주점 등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10~20대가 아니면 쉽게 발붙이기 힘들 정도다.

이 곳이 신흥 가두상권으로 부상한 것은 '문화전당 효과'가 컸다. 문화전당 입점에 앞서 가게를 선점하려는 커피숍, 외식업 등 대형프랜차이즈의 상가 매매가 이어졌고, 유행에 민감한 젊은층이 커피전문점과 네일아트점, 액세서리점으로 몰리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업주들은 경쟁적으로 물러드는 10~20대를 유인하기 위해 건물

내외부를 리모델링하고 메뉴를 바꾸는 등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커피전문점에 이어 최근에는 디저트전문점이 호황이다.

커피전문점 매니저로 일하는 박모(36)씨는 "젊은층에 특화된 인테리어 등 시각적 요소를 강화하고, 메뉴도 다양화하면서 손님이 크게 늘어났다"며 "최근에는 인근 상가 임대료도 평균 20% 가까이 상승하는 등 활황을 실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기존 주류였던 의류매장과 주점 등은 쇠퇴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높은 임대료로 핵심 상권에 치고 들어오면서 의류매장들은 전입하거나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보세 매장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요즘은 20여곳만이 영업중이다.

부동산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권변화가 기존 상권과 유행상권의 융합, 상권의 상업화로 특화거리로서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자생적 도심재생 모델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4년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서울 '쌈지길'이 광주에 생겨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38)씨는 "이곳이 아시아문화전당을 보고 형성된 상권이라는 점을 염두해 지역민 뿐만 아니라 이 곳을 찾은 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해외관광객을 상대할 상업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젊음의 거리 최근 문화전당 인근 총장로 1가 입구 가두상권이 급변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자생적 도심재생 모델로 성장할지 주목되고 있다. 밤늦게까지 영업 중인 커피숍 등 젊음의 거리 야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급조된 선거용 공약은 버려라”

윤장현 당선자 인수위, KTX광주역 진입 등 쟁시장 추진 7대 사업 '출구전략' 시급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인 '희망광주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시장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인수위 작업이 추동력을 잃고 있다.

이는 시장의 일부 실·국들이 준비위 보고과정에서 민선 5기 시절 잘못된 사업의 경우 문제점은 빼놓은 채 기본 현황만 보고해 혼란을 주는가 하면 선거용이나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는 탐구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준비위와 공직자들이 공동으로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비현실적인 사업은 폐기하고, 지하철 2호선 등 서민생

활과 밀접한 사업은 신중히 검토를 하는 등 '출구전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준비위는 지난 10일부터 광주시 업무 보고(공유)를 받고 있으며, 특히 시민의 관심이 높은 7대 사업은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이광이 준비위 대변인은 16일 준비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X광주역 진입 문제, 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개통 여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IDA총회,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

촌 5개구 분산, 광주공항 이전 등 7개 현안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사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공무원의 제대로 된 보고가 없는 한 준비위가 짧은 활동기간 동안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대변인이 밝힌 IDA총회는 이미 대회의 이름은 물론 대회 단체도 사라진 상태다.

광주시는 그동안 세계적 규모의 2015세계디자인연맹총회(IDA)를 유치했다며 정부지원까지 이끌어냈으나 지난해 11월 IDA조직이 해체됐으며, 앞서 같은 해 9월

로 예정됐던 제2회 터키 이스탄불 대회도 취소됐다. 시는 정세불안이 취소이유라고 밝혔지만, 경주시는 같은 해 9월 한달동안 이스탄불에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열었다. 대만에서 열렸던 제1회 대회도 대만의 한 대학이 만든 세미나 수준의 행사였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6000세대의 5개구 분산도 허점이 있다. 시는 당시 "광주 주택 보급률이 102.5%로 선진국(110%)보다 낮기 때문에 6000세대를 분양해 보급률을 106%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윤 당선자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실상 2013년 광주 주택 보급률은 107%나 되는 만큼 분양 세대수 규모는 재검토해야 한다.

31사단 이전 사업도 이를 약속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추진이 불투명하지만 시는 준비위에 추진중이라는 보고서만 전달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준비됐나요?
“대~한민국”

러시아 잡아야 16강 간다

한국, 내일 아침 운명의 한 판

태극전사들이 '유럽의 복병' 러시아를 맞아 '운명의 결전'을 치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오전 7시 브라질 쿠이아바의 판타나우 경기장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2014 브라질월드컵 H조 조별리그 1차전을 펼친다.

한국의 2년 연속 16강 진출 여부를 가늠할 경기다. 승리한다면 16강 진출의 7부 능선을 넘어섰고, 비긴다면 가능성은 50% 정도로 떨어진다.

실제 한국은 2002년 한·일 대회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 첫

경기의 승리가 조별리그 통과와 밀거늘 이었다.

이 때문에 홍명보호 역시 러시아와의 1차전 승리가 이번 대회 조별리그 통과와 핵심 과제다.

역대 가장 많은 해외파(17명)들로 구성된 홍명보호는 러시아를 맞아 4-2-3-1 전술을 펼친다.

공격의 선봉은 박주영(아스날)이 맡는 가운데 최우 날개는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청용(볼턴)이 책임진다.

구자철(마인츠)이 세도 스트라이커로 나서고, 중원은 기성용(선덜랜드)-한국영(가시와 레이솔) 조합이 맞는다. 기성용은 세트피스 전담 키킥과 패스의 시작을 알리는 조율사 역할까지 맡는다.

포백은 왼쪽부터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김영권(광주 유 행다)-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김창수(가시와 레이솔) 조합이 유력하다. 골키퍼는 경험이 풍부한 정성룡(수원)이 맡을 전망이다.

광주 출신 '중원의 사령관' 기성용(25)은 "키만큼은 자신있다"며 "세트피스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명보호는 러시아의 잔물 수비를 어떻게 뚫을 지가 관건이다.

한편, 18일 새벽 1시에는 한국과 같은 H조인 벨기에와 알제리가 먼저 맞붙는다. 이 경기는 결과에 따라 한국의 16강 진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으로서는 벨기에가 승리하는 편이 16강 진출에 더 도움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BRASIL 2014
관련기사 ▶ 2·3·7·18·19·21면

오늘의 월드컵 (17일·한국시간)
가나 G조 미국 A조
오전 7시·KBS2, SBS

내일의 월드컵 (18일·한국시간)
대한민국 H조 러시아 A조
오전 7시·KBS2, SBS, MBC

벨기에 H조 알제리 A조
오전 1시·KBS2, SBS, MBC

월드컵 스코어 보드
브라질 A조 멕시코 A조
오전 4시·KBS2, MBC, SBS

스위스 2:1 에콰도르
프랑스 3:0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2:1 보스니아

광신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60년
1954 60th 2014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NEW 주름개선기능성 화장품(화장품법)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나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한울 율러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세로워진 한울 율러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끗하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나가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예요.
*인체 실험 결과: 인후 결막 율러원액 30% 사용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①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②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러워졌다 99%
③ 윤기가 나빠져 탄력 없어 보이는 것 같다 99% ④ 피부가 탄력 있게 되면서 주름이 줄었다 99%
⑤ 피부가 자글자글 탱탱해진다 98% *인체 실험 결과: 인후 결막 율러원액 30% 사용, 2014.4.25~4.29 30명 실험

한울 율러원액
www.pms.co.kr
1800-023-0254